

기술수준별 한국 수출제품의 대 민트(MINTs) 국제경쟁력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Export Products against
MINTs based on Technological Level

심재희(Jae-Hee Shim)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론 및 시사점 |
| II. 한국과 민트 간 무역구조 | 참고문헌 |
| III. 기술수준별 수출품 분류와 분석방법 | ABSTRACT |
| IV. 분석 결과 |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민트의 성장성에 주목하여 기술수준별로 분류된 한국 수출제품의 민트에 대한 경쟁력의 현황 및 경쟁력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안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 민트 교역에서 한국의 교역액 및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교역 품목으로는 완제품 및 부품과 연료 등 1차 품목이 주로 수출입 되고 있다. 둘째, 무역성 과지수를 분석한 결과 국산 수출제품은 민트 국가들에 대해 높은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고, 추세적으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국산 수출품이 민트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품목별 경쟁력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 차원에서 자원 부국 민트와의 경제적 유대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둘째, 대 민트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여건에 대한 검토와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국산 수출품의 민트 국가에 대한 안정적인 경쟁력 유지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대 민트 교역의 내용이 국가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전략도 국가별로 차별화된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다섯째, 민트가 집단적 경제협력체를 형성하여 영향력을 확대해 갈 것에 대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주제어 : 기술수준, 수출제품, 민트(MINTs), 국제경쟁력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I. 서론

최근 2000년 이후 10여 년간 글로벌 경제성장의 동력이었던 브릭스(BRICs)를 대체하고 민트(MINTs) 국가들이 급속한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터키 등 4개국을 지칭하는 민트가 협력체를 만들어 영향력을 확대한다면 GDP가 2003-2008년 중국의 두 자릿수 성장률과 비슷한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과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의 분석에 따르면 민트는 2050년 글로벌 10대 경제국가 대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멕시코 GDP는 2012년 1조 1,800억 달러(세계 14위)에서 2050년에는 6조 9,500억 달러(세계 8위)로 5.9배 증가하고 인도네시아는 같은 기간 8,800억 달러(세계 16위)에서 6조 400억 달러(세계 9위)로 6.7배, 나이지리아는 2,600억 달러(세계 39위)에서 4조 9,100억 달러(세계 13위)로 18.9배, 그리고 터키는 7,900억 달러(세계 17위)에서 4조 4,500억 달러(세계 14위)로 5.6배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 또한 크게 증가하여 멕시코가 동 기간 10,600 달러에서 48,000 달러로 4.5배 증가하고 인도네시아는 3,600 달러에서 21,000 달러로 5.8배, 나이지리아는 1,400 달러에서 12,600 달러로 9배, 그리고 터키는 10,600 달러에서 48,500 달러로 4.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

이러한 전망과 함께 민트는 총인구가 5억명을 상회하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인구구성 면에서 젊은 층이 많아 경제성장에 유리하며, 지리적으로 두 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있거나 거대 시장에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산유국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²⁾ 또한 민트가 브릭스처럼 집단적 경제협력체로 결속하려는 조짐도 보이는 등 향후 민트가 거대 시장화 할 경우 한국으로서는 또 하나의 거대 교역 경제권과 조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민트에서의 시장선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에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트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여 한국의 주요 수출제품을 기술수준별로 구분한 후 이들 수출제품이 민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경쟁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경쟁력의 현황 및 경쟁력의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국산 수출제품의 위상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무역성과지수 산출을 통한 접근방식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그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경쟁력을 분석한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성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강강석

1) 한국금융연구원, "2014년 민트(MINTs) 국가의 부상 및 전망", 『주간 금융브리프』, 23권 4호, 2014, pp.20-21 재구성.

2) 한국금융연구원, 앞의 자료, 재구성.

외(2012)는 한·중·일의 조선산업을, 오보수 외(2012)는 한국과 인도의 IT산업을, 김성철(2012)은 한국 통신기기산업의 대중국 경쟁력을, 박지혜 외(2012)는 한국과 중국의 향장품을, 이순철(2012)은 한국 철도차량을, 광기호 외(2012)는 한국과 네덜란드의 일반기계산업을 분석하고 있고, 안병국 외(2013)는 한·중 철강기업을, 김윤두 외(2013)는 한국 채소류를, 박영무 외(2013)는 한국 방위산업을, 조택희(2013)는 충북지역의 수출산업을, 박연수 외(2013)는 한·일 유지산업을, 김경희(2013)는 한·중 지식서비스산업을, 모수원 외(2013)는 광양항과 인천항의 경쟁력을, 그리고 이상민 외(2013)는 한·베트남 임산물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기조 외(2014)는 중국 자동차 부품산업의 대일 경쟁력을, 최영훈 외(2014)는 한·중·일 철강산업을, 박상수 외(2014)는 중국시장 내 한국과 대만 간 경쟁력을, 송옥봉 외(2014)는 한·중 제조업을, 김태현(2014)은 미국의 양적완화가 대만의 수출경쟁력에 미친 영향을, 그리고 한나예 외(2014)는 한-EU FTA 전후의 한국의 대 EU 무역구조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한국 수출제품의 민트에 대한 기술수준별 비교우위를 측정한다. 그동안 민트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의 학술연구 성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본고는 민트에 대한 한국산 수출제품의 비교우위 분석을 통해 민트에서 국산 수출제품의 위상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수출전략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논문의 구성은 제 I 장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 한국과 민트 간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제 III 장에서 국산 수출제품의 민트에 대한 기술수준별 비교우위를 분석한 후, 마지막으로 제 IV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한국과 민트 간 무역구조

1. 민트의 수출입 현황

2013년 현재 민트의 총수출은 8,113억 2,500만 달러(전 세계 대비 4.5%), 총수입은 9,212억 6,500만 달러(전 세계 대비 4.9%)를 기록하여 총수출입이 17,325억 9,000만 달러(전 세계 대비 4.7%)에 달한다. 이 가운데 멕시코는 수출 3,801억 8,900만 달러, 수입 4,193억 3,100만 달러로 수출입 총액이 7,995억 2,000만 달러(전 세계 대비 2.2%)에 이르러 최고 수준이고 이어서 터키,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순이다. 터키는 수출 1,519억 7,600만 달러, 수입 9,212억 6,500만 달러로 996억 7,4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여 가장 큰 적자를 나타낸 가운데

멕시코와 인도네시아 역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나이지리아는 329억 5,300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표 1> 참조).

<표 1> 민트의 수출입 현황(2013년)

(단위: 백만 달러, %)

	멕시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터 키	계
수 출	380,189(2.1)	182,551(1.0)	96,609(0.5)	151,976(0.8)	811,325(4.5)
수 입	419,331(2.2)	186,628(1.0)	63,656(0.3)	251,650(1.4)	921,265(4.9)
수출입	799,520(2.2)	369,179(1.0)	160,265(0.4)	403,626(1.1)	1,732,590(4.7)
무역수지	-39,142	-4,077	32,953	-99,674	-109,940

주) () 안은 대 세계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를 토대로 작성.

<표 2> 민트의 국가별 수출입 현황(2013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멕시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터 키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1	미국 299,528(78.8)	미국 205,988(49.1)	일본 27,086(14.8)	중국 29,850(16.0)	인도 11,682(12.4)	중국 13,250(26.3)	독일 13,705(9.0)	러시아 25,064(10.0)
2	캐나다 10,452(2.8)	중국 67,454(16.1)	중국 22,602(12.4)	싱가포르 25,582(13.7)	미국 10,658(11.3)	미국 7,031(14.0)	이라크 11,952(7.9)	중국 24,686(9.8)
3	스페인 7,200(1.9)	일본 18,784(4.5)	싱가포르 16,686(9.1)	일본 19,285(10.3)	브라질 9,648(10.2)	인도 2,875(5.7)	영국 8,772(5.8)	독일 24,182(9.6)
4	중국 6,467(1.9)	한국 14,858(3.5)	미국 15,741(8.6)	말레이시아 13,323(7.1)	스페인 6,845(7.2)	프랑스 2,168(4.3)	러시아 6,965(4.6)	이탈리아 12,887(5.1)
5	브라질 5,387(1.4)	독일 14,807(3.5)	인도 13,031(7.1)	한국 11,593(6.2)	네덜란드 6,806(7.2)	영국 2,117(4.3)	이탈리아 6,718(4.4)	미국 12,599(5.0)
6	콜롬비아 4,735(1.3)	캐나다 10,832(2.6)	한국 11,423(6.3)	태국 10,703(5.7)	독일 4,886(5.2)	네덜란드 2,104(4.2)	프랑스 6,383(4.2)	이란 10,383(4.1)
7	인도 3,812(1.0)	이탈리아 6,183(1.5)	말레이시아 10,667(5.8)	미국 9,082(4.9)	프랑스 4,567(4.8)	독일 1,866(3.7)	미국 5,701(3.8)	스위스 9,650(3.8)
1	터 키 358(0.1)	인도네시아 1,264(0.3)	터 키 1,536(0.8)	나이지리아 3,122(1.7)	인도네시아 2,839(3.0)	인도네시아 614(1.2)	나이지리아 413(0.3)	인도네시아 1,990(0.8)
2	인도네시아 213(0.1)	터 키 580(0.1)	멕시코 687(0.4)	터 키 1,315(0.7)	멕시코 448(0.5)	터 키 454(0.9)	멕시코 239(0.2)	멕시코 1,001(0.4)
3	나이지리아 70(0.02)	나이지리아 448(0.1)	나이지리아 558(0.3)	멕시코 687(0.4)	터 키 136(0.1)	멕시코 76(0.2)	인도네시아 231(0.2)	나이지리아 149(0.1)

주) () 내 수치는 민트 각국의 전체 수출입에서 교역대상국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를 토대로 작성.

민트의 주요 교역대상국을 살펴보면, 멕시코는 대미 수출입 총액이 5,055억 1,600만 달러에 달해 미국 의존도가 멕시코의 여타 교역대상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멕시코가 미국 수출을 위한 생산기지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도네시아의 대일 수출액과 대중 수입액은 각각 270억 8,600만 달러(14.8%)와 298억 5,000만 달러(16.0%)를 기록하고 있고, 나이지리아의 대인도 수출액과 대중 수입액은 각각 123억 6,800만 달러(12.8%)와 132억 5,000만 달러(20.8%)를 나타내 이들 국가와의 교역규모가 가장 크다. 그리고 터키의 경우는 독일에 137억 500만 달러(9.0%)를 수출한 반면 러시아로부터는 250억 6,400만 달러(10.0%)를 수입하여 양국은 터키의 최대 교역 파트너이다. 한편 민트 각국의 총수출입에서 민트 국가들 간 수출입이 차지하는 규모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 참조).

<표 3> 민트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2012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멕시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터 키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1	전기기기 74,874(20.2)	전기기기 77,607(20.9)	광물성연료 63,385(33.4)	광물성연료 42,764(22.3)	광물성연료 120,304(84.0)	자동차·부품 6,712(18.7)	귀금속 16,328(10.7)	광물성연료 60,117(25.4)
2	자동차·부품 70,272(19.0)	기계류 60,758(16.4)	동식물성유지 21,300(11.2)	기계류 28,430(14.8)	고무 10,102(7.1)	기계류 4,916(13.7)	자동차·부품 15,150(9.9)	기계류 26,315(11.1)
3	기계류 53,774(14.5)	광물성연료 33,342(9.0)	전기기기 10,765(5.7)	전기기기 18,905(9.9)	코코아 3,796(2.7)	곡물 3,436(9.6)	기계류 12,007(7.9)	철강 19,640(8.3)
4	광물성연료 52,271(14.1)	자동차·부품 32,426(8.8)	고무 10,475(5.5)	철강 10,139(5.3)	선박 1,734(1.2)	전기기기 3,268(9.1)	철강 11,334(7.4)	전기기기 16,280(6.9)
5	귀금속 13,217(3.6)	플라스틱 19,835(5.4)	기계류 6,103(3.2)	자동차·부품 9,757(5.1)	낙농품 1,160(0.8)	어류 1,418(4.0)	전기기기 9,380(6.2)	자동차·부품 14,514(6.1)
6	광학기기 11,731(3.2)	광학기기 11,744(3.2)	광·슬랙 5,083(2.7)	플라스틱 6,991(3.7)	원피 1,131(0.8)	플라스틱 1,518(4.2)	의류1 8,428(5.5)	플라스틱 12,505(5.3)
7	플라스틱 7,521(2.0)	철강 10,151(2.7)	자동차·부품 4,857(2.6)	유기화학품 6,883(3.6)	웨이스트 702(0.5)	철강제품 1,258(3.5)	광물성연료 7,708(5.1)	귀금속 8,530(3.6)
8	가구류 7,339(2.0)	유기화학품 9,727(2.6)	제지용펄프 3,937(2.1)	철강제품 4,890(2.6)	과실류 635(0.4)	철강 1,053(2.9)	철강제품 6,101(4.0)	유기화학제품 5,065(2.1)
9	철강제품 5,352(1.4)	철강제품 8,578(2.3)	화학공업품 3,846(2.0)	항공기·부품 4,495(2.4)	사료식물 505(0.4)	당류 1,020(2.8)	의류2 5,436(3.6)	광학기기 4,056(1.7)
10	채소류 5,012(1.4)	고무 6,320(1.5)	의류 3,745(2.0)	곡물 3,714(1.9)	곡물 452(0.3)	광물성연료 850(2.4)	플라스틱 5,015(3.3)	의료용품 3,996(1.7)

주) HS 코드 2단위 기준으로, ()는 각국의 전체 수출입에서 당해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www.comtrade.un.org에서 추출.

<표 3>에서 민트의 주요 교역품목을 보면, 멕시코의 교역품은 미국 인접 지역에서 임가공

및 조립 생산하는 전기기기,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등의 수출과 이들 제품 생산에 필요한 관련 부품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광물성 연료의 수입 비중(9.0%)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멕시코가 원유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유기술이 낮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에 있어 광물성 연료는 한 해 633억 8,500만 달러(33.4%)를 수출하는 최대 수출 품목임과 동시에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저수준의 정유기술로 인해 수입액 427억 6,400만 달러(22.3%)에 이르는 최대 수입 품목이기도 하다. 특히 나이지리아는 광물성 연료 수출이 1,203억 400만 달러(84.0%)에 달해 다른 수출품목에 비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수입은 자동차 및 부품이 67억 1,200만 달러(18.7%)로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터키의 경우는 귀금속과 광물성 연료를 제외하면 수출입 품목이 유사한데, 이는 터키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원자재 및 핵심부품 수입이 많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그리고 광물성 연료의 비중(25.4%)이 높은 것을 제외하면 그 밖의 제품들 간 수출입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고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 한국과 민트 간 교역 현황

한국의 대 민트 총수출은 285억 2,400만 달러, 총수입은 184억 9,000만 달러를 나타내 총수출입이 470억 1,400만 달러(세계 전체의 4.4%)를 기록하고 있다.³⁾ 이 중 대 인도네시아 교역 규모는 수출 115억 6,800만 달러, 수입 131억 9,000만 달러로 수출입 합계가 247억 5,800만 달러(2.3%)를 기록하여 가장 많고 이어서 멕시코, 터키, 나이지리아 순이다. 한국은 멕시코 및 터키와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멕시코에 대해서는 수출 97억 2,700만 달러, 수입 23억 100만 달러로 74억 2,6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여 흑자규모가 가장 크고 터키에 대해서는 수출 56억 5,800만 달러, 수입 184억 9,000만 달러로 49억 6,600만 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 및 나이지리아와의 교역에서는 무역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수출 115억 6,800만 달러, 수입 131억 9,000만 달러로 16억 2,200만 달러의 적자를, 나이지리아에 대해서는 수출 15억 7,100만 달러, 수입 23억 700만 달러로 7억 3,6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표 4> 참조).

3) 한국의 대 민트 교역액은 192억 9,000만 달러(2004년)→254억 7,000만 달러(2006년)→361억 7,300만 달러(2008년)→388억 7,700만 달러(2010년)→488억 900만 달러(2012년)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도 22억 7,400만 달러→45억 3,800만 달러→104억 9,300만 달러→57억 700만 달러→79억 6,000만 달러로 증가세에 있다.

<표 4> 한국의 대 민트 수출입 현황(2013년)

(단위: 백만 달러, %)

	멕시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터 키	계
수 출	9,727(1.7)	11,568(2.1)	1,571(0.3)	5,658(1.0)	28,524(5.1)
수 입	2,301(0.5)	13,190(2.6)	2,307(0.5)	692(0.1)	18,490(3.6)
수출입	12,028(1.1)	24,758(2.3)	3,878(0.4)	6,350(0.6)	47,014(4.4)
무역수지	7,426	-1,622	-736	4,966	10,034

주) () 안은 세계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를 토대로 작성.

<표 5> 한국의 대 민트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2013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멕시코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터 키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1	액정디바이스 1,479(15.2)	기타금속광물 460(20.0)	경유 2,117(18.3)	LNG 4,008(30.4)	해양구조물 523(33.3)	LNG 2,187(94.8)	액정디바이스 422(7.5)	기타석유제 품 183(26.5)
2	칼라TV부품 1,158(11.9)	아연광 216(9.4)	휘발유 1,103(9.5)	유연탄 2,571(19.5)	폴리프로필렌 147(9.4)	동스크랩 54(2.3)	자동차부품 382(6.8)	의약품 82(11.9)
3	자동차부품 863(8.9)	자동차부품 174(7.6)	편직물 628(5.4)	원유 1,218(9.2)	승용차2 115(7.3)	프로판 28(1.2)	승용차3 182(3.2)	자동차부품 52(7.5)
4	기타선박 515(5.3)	승용차1 82(3.6)	열연강관 404(3.5)	병커C유 451(3.4)	기타석유화학 제품 81(5.2)	연괴 11(0.5)	기타건설중 장비 174(3.1)	사료 16(2.3)
5	평판DP 480(4.9)	기타무선통신 부품 80(3.5)	비행기 342(3.0)	천연고무 402(3.1)	고밀도에틸렌 39(2.5)	부탄 10(0.4)	기타플라스틱 제품 165(2.9)	정밀화학원 료 15(2.2)
6	승용차1 324(3.3)	은 79(3.4)	냉연강관 240(2.1)	펄프 363(2.8)	승용차1 38(2.4)	연분 3(0.1)	화물선 151(2.7)	내연기관 13(1.9)
7	냉연강관 306(3.2)	기타의료용 기기 58(2.5)	폴리프로필 렌 138(1.2)	동광 354(2.7)	포트랜드시 멘트 36(2.3)	연스크랩 3(0.1)	폴리프로필렌 139(2.5)	기타비금속 광물12(1.7)
8	기타무선전화 기 226(2.3)	조립식완구 55(2.4)	칼라TV부품 136(1.2)	박류 168(1.3)	연축전지 33(2.1)	알루미늄괴 3(0.1)	고밀도에틸 렌 138(2.4)	어육 12(1.7)
9	용융아연도 강관 208(2.1)	슬랩 54(2.4)	정밀화학원 료 135(1.2)	니켈괴 165(1.3)	기타섬유제품 27(1.7)	폐건전지 2(0.1)	ABS수지 120(2.1)	가죽제가방 10(1.5)
10	승용차2 172(1.8)	내연기관 42(1.8)	SBR 133(1.2)	위성방송수 신 151(1.2)	명태 27(1.7)	화학기계 부품 2(0.1)	열연강관 114(2.0)	앞담배 9(1.3)

주) MTI 코드 6단위 기준. 승용차1은 1,500cc 이하, 승용차2는 1,500cc 이상, 승용차3은 2,500cc 이하임.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추출.

한국의 대 민트 주요 수출입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은 멕시코와의 교역에서 액정디바이스(14억 7,900만 달러, 15.2%), 칼라TV부품, 자동차부품 등을 많이 수출하고 수입품목으로는 기타금속광물(4억 6,000만 달러, 20.0%), 아연광, 자동차부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에서는 경유(21억 1,700만 달러, 18.3%), 휘발유, 편직물 등을 많이 수출하고 LNG(40억 800만 달러, 30.4%), 유연탄, 원유 등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나이지리아와의 교역에서는 해양구조물의 수출이 5억 2,300만 달러(33.3%)로 가장 많고 수입품목에서는 21억 8,700만 달러(94.8%)를 기록한 LNG가 여타 수입품을 압도하고 있다. 그리고 대 터키 교역에서는 액정디바이스(4억 2,200만 달러), 자동차부품, 승용차(2,500cc 이하) 등을 많이 수출하고 수입은 기타석유제품, 의약품, 자동차부품 순으로 비중이 높다(<표 5> 참조). 정리하면, 한국은 민트에 승용차, TV 등의 완제품과 현지 진출 생산공장의 가동에 따른 관련 부품을 주로 수출하는 반면 민트로부터는 금속광물, 아연광, LNG 등 1차 품목 중심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승용차 등 완제품과 부품 등도 일부 수입되고 있다.

Ⅲ. 기술수준별 수출제품 분류와 분석방법

1. 기술수준별 수출제품 분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수출품을 기술수준 정도에 따라 첨단기술제품(high technology products), ICT제품(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roducts), 중고위기술제품(medium-high technology products), 중저위기술제품(medium-low technology products), 저위기술제품(low technology products)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제품의 분류를 OECD의 분류방식을 따르되, 이 분류와 무역분류(SITC)를 일치시킨 심영섭·오영석(2001)의 연구를 활용하기로 한다. 여기서 OECD의 제품분류 중 첨단기술제품과 ICT제품을 고위기술제품(high technology products)으로 통합하여 고위기술제품, 중고위기술제품, 중저위기술제품, 저위기술제품 등 4개 제품군으로 재조정하여 사용하는 데, 이들 4개 제품군에는 각각 5개, 6개, 9개, 5개 등 총 25개의 개별 품목이 설정되어 있다(<표 6> 참고). 무역분류는 SITC Rev.3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25개 품목에 대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4년간의 수출입 자료를 UN 상품무역(comtrade) 통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확보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표 6> OECD 기술수준별 수출품 분류 재조정과 무역분류의 연결표

OECD	본연구	세부 품목	SITC Rev.3	OECD	본연구	세부 품목	SITC Rev.3
첨단기술제품	고위기술제품	우주·항공(항공)	792	중저위기술제품	중저위기술제품	석유 및 석탄제품(석유)	32 33
		의약	54			플라스틱·고무제품(고무)	58 62
ICT 제품	고위기술제품	전자부품	772 773 776 778			비금속광물제품(비금속)	66
		컴퓨터·사무기기(컴퓨터)	75			제1차 금속제품(1차금속)	67
		정보통신·방송기기(IT)	76			비철금속제품(비철금속)	68
중고위기술제품	중고위기술제품	화학제품(화학)	5(54 제외)			조립금속제품(조립금속)	69
		일반기계 및 장비(기계)	71 72 73 74			전기기계·변환장치(변환장치)	771
		가정용 전기기기(가전)	775			선박 및 수리(선박)	793
		정밀기기(정밀)	774 87 88			기타 제조업(제조업)	89(892 제외)
		자동차	781			저위기술제품군	저위기술제품
			782	섬유·의료·가죽제품(섬유)	61 65 84		
			783	목재 및 종이제품(목재)	63 64		
784	인쇄·출판·복제(인쇄)		892				
786	가구	82					
	기타 수송장비(수송)	791					

주) 세부 품목에서 () 안은 약칭.
 자료: 심영섭·오영석, 『한국 산업의 경쟁력 분석: 외환위기 이후의 수출경쟁력 변화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01, p.24.

2. 분석방법

민트 국가에 대한 국산 수출제품의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측정지수들 중 본 연구에서는 무역특화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활용한다.

무역특화지수(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는 한 나라의 특정 상품의 수출입 규모 대비 순수출 규모를 분석함으로써 특정 상품의 수출특화 혹은 수입특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수로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Hossain, 1996; Redding, 2002; Huang and Wang, 2008; Amador, Cabral and Maria, 2011 등).

$$TSI_{ij}^k = \frac{X_{ij}^k - M_{ij}^k}{X_{ij}^k + M_{ij}^k} \quad \text{또는} \quad TSI_{ij}^k = \frac{(X_{ij}^k / M_{ij}^k) - 1}{(X_{ij}^k / M_{ij}^k) + 1}$$

여기서 TSI_{ij}^k 는 i 국 k 재의 j 국에서의 무역특화지수, X_{ij}^k 는 i 국의 j 국에 대한 k 재 수출액, M_{ij}^k 는 i 국의 j 국으로부터의 k 재 수입액을 의미한다.

무역특화지수는 $-1 \leq TSI \leq 1$ 의 크기를 갖는데, 지수가 1에 접근할수록 k 재의 수출특화의 정도가 높아 경쟁력이 비교우위에 있고 -1 에 접근할수록 k 재의 수입특화의 정도가 높아 경쟁력이 비교열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TSI = 1$ 이면 완전수출특화를, $TSI = 0$ 이면 비교중립적인 상태를, $TSI = -1$ 이면 완전수입특화를 나타낸다(Lapadre, 2001; Ferrarini and Scaramozzino, 2010). 본 연구에서는 무역특화지수의 범위를 수출특화가 매우 강한 절대우위($0.5 \leq TSI \leq 1$), 수출특화가 강한 비교우위($0 < TSI < 0.5$), 중립상태($TSI = 0$), 수입특화가 강한 비교열위($-0.5 < TSI < 0$), 수입특화가 매우 강한 절대열위($-1 \leq TSI \leq -0.5$)로 세분하여 사용하기로 한다(남시경, 2007).⁴⁾

무역특화지수와 더불어 경쟁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시장비교우위지수(Market Comparative Advantage Index: MCA)를 이용한다. 시장비교우위지수는 경쟁력 측정지수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유사한 개념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가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특정 시장에서의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수이다(민경택 외, 2011; 이민기·모수원, 2011; 김희철, 2013; 맹철규, 2013 등).⁵⁾

$$MCA_{ij}^k = \frac{X_{ij}^k / X_{ij}}{M_j^k / M_j} = \frac{X_{ij}^k / X_{ij}}{X_i^k / X_i}$$

여기서 MCA_{ij}^k 는 i 국 k 재의 j 국에서의 시장비교우위지수, X_{ij}^k 는 i 국의 j 국에 대한 k 재 수출액, X_{ij} 는 i 국의 j 국에 대한 총수출액, M_j^k 는 j 국의 k 재 수입액, M_j 는 j 국의 총수입액, X_i^k 는 i 국의 k 재 총수출액, X_i 는 i 국의 총수출액을 의미한다.

시장비교우위지수는 0보다 큰 값을 가지며, 동 지수가 1보다 크면 j 국에서 i 국 k 재의 경

4) 한기조·서봉교(2014)는 奥村和久(1996)의 국제분업 분류방식을 응용하여 TSI 값에 따라 경쟁력을 경쟁력 절대우위($0.34 \leq TSI$), 경쟁력 우위($0.03 \leq TSI < 0.34$), 균형($-0.03 < TSI < 0.03$), 경쟁력 열위($-0.34 < TSI < -0.03$), 경쟁력 절대열위($TSI \leq -0.34$)로 분류하고 있다. 송원근(2010)은 절대적 경쟁력 우위($0.50 \leq TSI < 1.00$), 상대적 경쟁력 우위($0.25 \leq TSI < 0.50$), 경합($-0.25 \leq TSI < 0.25$), 상대적 경쟁력 열위($-0.25 \leq TSI < -0.50$), 절대적 경쟁력 열위($-0.50 \leq TSI < -1.00$)로 구분하고 있고, 그 밖에 김박수 외(2005), 임해준(2007) 등의 분류방식이 있다.

5) MCA지수는 수입의 경우 각종 국내 무역장벽으로 지수가 왜곡되어 비교우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Lafay(1992)는 최근 다양한 다자간·지역간·양자간 통상협상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무역장벽이 완화·철폐되어 수입 MCA지수도 무역패턴 분석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수출 MCA지수와 수입 MCA지수를 비교하여 각종 무역장벽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였다(양준석·김홍률, 2002, pp.72-73).

쟁력이 비교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UN의 분류방식을 응용하여 시장비교우위지수의 범위를 경쟁력 매우 높음($3.0 \leq MCA$), 경쟁력 높음($1.5 \leq MCA < 3.0$), 경쟁력 다소 높음($1.0 \leq MCA < 1.5$), 경쟁력 다소 낮음($0.5 \leq MCA < 1.0$), 경쟁력 낮음($0.0 \leq MCA < 0.5$)으로 세분류하여 경쟁력을 점검하기로 한다.

IV. 분석 결과

1. 무역특화지수 분석

<표 7>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산정한 한국의 대 민트 무역특화지수를 평균 기준으로 경쟁력 유형별로 구성한 것이고,⁶⁾ <표 8>은 2009년과 2012년의 두 비교시점에 대해 경쟁력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평균 기준으로 경쟁력을 살펴보면, 제품군 기준시 한국은 멕시코와 나이지리아, 터키와의 교역에서 4개 전 제품군이 매우 강한 수출특화를 나타내고 있고,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에서는 중저위기술제품군이 강한 수입특화를 보이고 있을 뿐 나머지 3개 제품군은 수출특화를 나타내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품목 기준으로는 고위기술제품군에서 터키에 대해 5개 전 품목이 매우 강한 수출특화를 나타내 가장 높은 경쟁력을 확보한 가운데 우주·항공(792) 등이 국가별로 선택적으로 수입특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과의 교역에서도 다수의 품목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중고위기술제품군에서는 대 멕시코 및 대 나이지리아 교역에서 6개 품목 모두 매우 강한 수출특화를 나타내 가장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여타 국가들과의 교역에서도 가정용 전기기기(775)가 강한 수입특화를 보이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품목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중저위기술제품군에서의 경우 한국은 민트에 대해 많은 품목이 수출특화를 나타내고 있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나이지리아와의 교역에서 9개 전 품목이 수출특화를 보여 가장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3국과의 교역에서만 석유 및 석탄제품(32~3) 등 3개 품목이 국가에 따라 강한 수입특화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저위기술제품군에서는 모든 국가에 대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5개 전 품목이 매우 강한 수출특화를 보여 나이지리아와의 교역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고 나머지 국

6) 제한된 지면으로 무역특화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의 추계치 계계를 생략함.

가들과의 교역에서도 음식료품·담배(11~2) 등 3개 품목이 국가별로 수입특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많은 품목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정리하면, 한국은 민트 각국에 대해 다수의 제품군과 개별 품목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2009년과 2012년의 두 시점에서 경쟁력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제품군 기준으로 한국은 대 멕시코 교역에서 모든 제품군이 수출특화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중고위기술 제품군의 경쟁력이 다소 약화된 반면 나머지 3개 제품군은 매우 강한 수출특화세를 지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에서는 중저위기술제품군이 최근 수입특화에서 수출특화로 전환되어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중고위기술제품군이 매우 강한 수출특화세를, 고위 및 저위기술제품군이 강한 수출특화세를 유지하는 등 전 제품군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와 터키 교역에서는 전 제품군이 매우 강한 수출특화세를 나타내고 있어 앞의 2국을 상회하는 매우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품목 기준으로는 고위기술제품군에서 터키에 대해 우주·항공이 경쟁력의 약세 속에서 수출특화를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4개 품목은 매우 강한 수출특화세를 유지하는 등 5개 품목 모두 수출특화를 보여 4국 중 가장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여타 국가들에 대해서도 우주·항공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은 수출특화를 나타내고 있다. 중고위기술제품군에서는 6개 전 품목에서 매우 강한 수출특화세를 보이고 있는 터키에 대해서 역시 가장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3국에 대해서도 기타 수송장비(791)와 가정용 전기기기의 경쟁력이 개선 및 약화된 가운데 수입특화를 나타내고 있을 뿐 나머지 품목들에 대해서는 수출특화를 보여주고 있어 경쟁력이 높다. 중저위기술제품군의 경우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석유 및 석탄제품 등 6개 품목이 매우 강한 수출특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나머지 품목들도 수출특화세를 유지하고 있거나 수출특화가 강화되고 있어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다른 국가와의 교역에서도 전기기계·변환장치(771) 등 3개 품목이 국가에 따라 수출특화 상태에서 경쟁력이 다소 약화되고 있거나 수입특화 상태에서 경쟁력이 약화 및 개선되고 있을 뿐이어서 중저위기술제품군에서 한국의 대 민트 경쟁력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저위기술제품군에서는 5개 제품 모두 매우 강한 수출특화세를 나타내고 있는 나이지리아와의 교역에서 중저위기술제품군에서처럼 가장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한편,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도 음식료품담배 등 3개 품목만 경쟁력이 낮게 나타나고 있을 뿐 전반적으로 저위기술제품군에서 한국의 대 민트 경쟁력은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국 수출제품은 장기의 경쟁력 추이에서도 민트 국가에 대해 수출특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7〉 한국의 대 민트 TSI(2009-2012년 평균)

제품	국 가	절대우위	비교우위	비교열위	절대열위
제품군	Mexico	전 제품군	×	×	×
	Indonesia	중고위기술제품	고·저위기술제품	중저위기술제품	×
	Nigeria	전 제품군	×	×	×
	Turkey	전 제품군	×	×	×
고위기술제품	Mexico	IT, 전자부품	의약, 컴퓨터	×	항공
	Indonesia	전자부품	컴퓨터, IT, 항공	의약	×
	Nigeria	의약, 컴퓨터, IT, 전자부품	×	항공	×
	Turkey	의약 컴퓨터, IT, 항공, 전자부품	×	×	×
중고위기술제품	Mexico	화학, 가전, 기계, 정밀, 자동차, 수송	×	×	×
	Indonesia	기계, 수송, 정밀	화학	가전	×
	Nigeria	화학, 가전, 기계, 수송, 정밀, 자동차	×	×	×
	Turkey	화학, 기계, 가전, 수송, 자동차	정밀	×	×
중저위기술제품	Mexico	고무, 조립금속, 선박, 변환장치	석유, 비금속, 제조업	비철금속	×
	Indonesia	1차·조립금속, 선박	고무, 제조업, 비철금속, 변환장치	석유, 비금속	×
	Nigeria	석유, 고무, 선박, 제조업 1차·비금속, 변환장치	비철·조립금속	×	×
	Turkey	고무, 제조업, 선박 1차·비철·조립금속	비금속, 변환장치	석유	×
저위기술제품	Mexico	섬유, 가구, 인쇄	×	목재	음식료품
	Indonesia	음식료품, 인쇄	섬유	×	목재, 가구
	Nigeria	음식료품, 섬유, 목재, 가구, 인쇄	×	×	×
	Turkey	섬유, 목재, 인쇄	가구	×	음식료품

〈표 8〉 한국의 대 민트 TSI 변화 추이

제품	경쟁력 유형	Mexico	Indonesia	Nigeria	Turkey
제품군	비열→비우	×	중저위기술제품	×	×
	절우→비우	중고위기술제품	×	×	×
	절대우위세	고·중·저위기술제품	중고위기술제품	전 제품군	전 제품군
	비교우위세	×	고·저위기술제품	×	×
고위기술제품	비우→절우	×	전자부품	×	×
	비열→비우	×	컴퓨터	×	×
	절우→비우	의약, 컴퓨터	×	×	항공
	비열→절열	항공	×	×	×
	절대우위세	전자부품, IT	항공	전자부품, 의약, 컴퓨터, IT	전자부품, 의약, 컴퓨터, IT
	비교우위세	×	의약, IT	×	×
	절대열위세	×	×	항공	×
중고위기술제품	비우→절우	×	×	기계	×
	절열→비열	×	가전	×	×
	절우→중립	×	×	수송	×
	절우→비열	수송	×	×	×
	절대우위세	화학, 자동차, 가전, 정밀, 기계	기계, 수송, 정밀, 자동차	가전, 정밀, 화학, 자동차	화학, 기계, 수송, 정밀, 가전, 자동차
	비교우위세	×	화학	×	×
중저위기술제품	비우→절우	×	×	제조업	×
	비열→절우	×	×	조립금속	×
	비열→비우	비금속	×	×	비금속
	절열→비우	비철금속	×	×	×
	절열→비열	×	×	×	석유
	절우→비우	×	×	×	변환장치
	비우→절열	석유	×	×	×
	절대우위세	고무, 변환장치, 선박, 1차·조립금속	1차·조립금속, 선박	고무, 선박, 석유, 변환장치, 1차·비금속	선박, 제조업, 고무, 1차·비철·조립금속
	비교우위세	제조업	고무, 비철금속, 변환장치, 제조업	비철금속	×
비교열위세	×	석유, 비금속	×	×	
저위기술제품	절열→비열	×	목재	×	음식료품
	절우→비우	×	음식료품	×	×
	비우→비열	×	×	×	가구
	절우→비열	목재	×	×	×
	절대우위세	섬유, 인쇄, 가구	인쇄	인쇄, 가구, 섬유, 음식료품, 목재	섬유, 목재, 인쇄
	비교우위세	×	섬유	×	×
	절대열위세	음식료품	가구	×	×

주) ‘절우’는 절대우위, ‘비우’는 비교우위, ‘비열’은 비교열위, ‘절열’은 절대열위, ‘절대우위세’는 절대우위에서 절대우위로, ‘비교우위세’는 비교우위에서 비교우위로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2. 시장비교우위지수 분석

<표 9>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계한 한국의 대 민트 시장비교우위지수를 평균 기준으로 경쟁력 유형별로 구성한 것이고, <표 10>은 2009년과 2012년의 두 비교시점에 대해 경쟁력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평균을 기준으로 경쟁력을 살펴보면, 제품군 기준시 한국은 대 민트 교역에서 매우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제품군이 전무한 가운데 나이지리아에 대해서는 중저위기술 이상의 제품군에서 경쟁력이 높게 나타나 가장 많은 제품군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멕시코에 대해서는 중고위기술 이상의 제품군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중저위기술 이하의 제품군에서, 그리고 터키에 대해서는 중고위기술 이하의 제품군에서 경쟁력이 높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경쟁력은 다소 낮지만 나머지 3국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민트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별 품목 기준으로는 고위기술제품군에서 경쟁력이 매우 높은 품목이 전혀 없는 가운데 나이지리아와의 교역에서 동제품군에 속하는 5개 품목 중 정보통신·방송기기(76) 등 3개 품목의 경쟁력이 높게 나타나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반면에 나머지 3국과의 교역에서는 경쟁력이 낮은 품목이 경쟁력이 높은 품목 수를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54) 등이 국가별로 경쟁력이 다소 낮거나 낮은 수입특화를 보이고 있다. 중고위기술제품군에서는 터키에 대해서 기타 수송장비(791) 등 6개 전 품목이 매우 높은 경쟁력을 나타내 가장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멕시코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한 품목과 경쟁력이 낮은 품목 수가 같았고 나머지 2국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낮은 품목이 경쟁력이 높은 품목 수를 웃돌고 있다. 중저위기술제품군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선박 및 수리(793)에서 매우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터키에 대해서 다수의 품목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멕시코와 나이지리아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낮은 품목이 경쟁력이 높은 품목 수를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저위기술제품군에서는 4국에 대해서 모두 경쟁력이 낮은 품목이 경쟁력이 높은 품목 수를 초과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품목이 전무하고 나머지 3국에 대해서는 섬유·의료·가죽제품(61 65 84) 등이 국가에 따라 경쟁력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요약하면, 한국은 제품군에서 민트 국가에 대해 대체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개별 품목에서는 다수의 품목이 경쟁력이 낮은 가운데 고위기술제품군 이외의 제품군들에서 다수 품목의 경쟁력이 매우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민트에 대한 경쟁력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2009년과 2012년의 두 시점에서 경쟁력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제품군을 기준

으로 한국은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저위 및 중고위기술제품군은 경쟁력이 강화되고 중저위기술제품군은 경쟁력이 약화된 가운데 고위기술제품군은 경쟁력이 강세를 보여 전 제품군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다른 3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고위 및 중고위의 비교적 높은 기술제품군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이들 제품군의 경쟁력은 다소 낮은 상태를 유지한 채 저위 및 중저위의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제품군에서는 경쟁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터키에 대해서는 중고위 및 중저위의 중급 수준 기술의 제품군에서는 경쟁력이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두 제품군에서는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개별 품목 기준으로는 고위기술제품군에서 나이지리아에 대해 의약 등 3개 품목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사무기기(75)의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어 대 민트 교역에서 가장 긍정적인 교역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데 반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5개 전 품목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장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중고위기술제품군에서는 터키에 대해서 6개 전 품목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기·변환장치(771) 등 3개 품목의 경쟁력이 개선되어 교역성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정밀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들이 낮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어 역시 교역의 성과는 가장 부정적이었다. 중저위기술제품군의 경우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9개 품목 중 석유 및 석탄제품(32~3) 등 6개 품목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석유 및 석탄제품 등 4개 품목의 경쟁력이 개선되어 가장 바람직한 교역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데 반해 멕시코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품목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저위기술제품군에서는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조립금속제품(69) 등 3개 품목의 경쟁력이 개선되고 있어 다른 3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역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이외의 국가에 서는 섬유·의료·가죽제품(61 65 84)만이 경쟁력이 높고 멕시코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높거나 개선된 품목이 하나도 없다. 결국 한국 수출제품은 경쟁력 추이에서도 민트 국가들에 대해 수출특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한국의 대 민트 MCA지수(2009-2012년 평균)

제품	국 가	경쟁력 매우 높음	경쟁력 높음	경쟁력 다소 높음	경쟁력 다소 낮음	경쟁력 낮음
제품군	Mexico	×	중고위기술제품	고위기술제품	중저위기술제품	저위기술제품
	Indonesia	×	저·중저위기술제품	×	고·중고위기술제품	×
	Nigeria	×	고·중저위기술제품	중고위기술제품	저위기술제품	×
	Turkey	×	중고위기술제품	저·중저위기술제품	고위기술제품	×
고 위 기술 제품	Mexico	×	IT	×	×	의약, 전자부품, 항공, 컴퓨터
	Indonesia	×	×	IT	전자부품	의약, 항공, 컴퓨터
	Nigeria	×	IT	의약, 전자부품	×	컴퓨터, 항공
	Turkey	×	IT	×	컴퓨터, 전자부품	의약, 항공
중 고 위 기술 제품	Mexico	정밀	가전	자동차	화학, 기계	수송
	Indonesia	×	×	정밀	화학, 가전, 기계	수송, 자동차
	Nigeria	화학	×	정밀	가전, 자동차	기계, 수송
	Turkey	수송	가전, 정밀, 자동차	화학, 기계	×	×
중 저 위 기술 제품	Mexico	1차금속, 선박	×	×	석유, 고무, 조립금속	비철·비금속, 제조업, 변환장치
	Indonesia	×	석유, 1차·비철금속	비금속, 제조업	고무, 조립금속, 변환장치, 선박	×
	Nigeria	석유, 선박	비금속, 변환장치	×	제조업, 고무, 1차·비철·조립금속	×
	Turkey	선박	고무, 제조업, 1차금속	변환장치	조립금속	석유, 비철·비금속
저 위 기술 제품	Mexico	×	×	×	섬유	음식료품, 목재, 가구, 인쇄
	Indonesia	섬유	인쇄	×	×	음식료품, 목재, 가구
	Nigeria	×	섬유	×	-	음식료품, 목재, 가구, 인쇄
	Turkey	×	×	섬유, 인쇄	목재	음식료품, 가구

<표 10> 한국의 대 민트 MCA지수 변화 추이

제품	경쟁력 유형	Mexico	Indonesia	Nigeria	Turkey
제품군	약고→높음	×	중저위기술제품	저·중고위기술제품	×
	강고→높음	×	저위기술제품	×	×
	높음→약고	×	×	중저위기술제품	×
	약고→약저	×	×	×	저위기술제품
	높음→높음	중고위기술제품	×	고위기술제품	중고위기술제품
	약고→약고	고위기술제품	×	×	중저위기술제품
	약저→약저	중저위기술제품	고·중고위기술제품	×	고위기술제품
고위기술제품	낮음→낮음	저위기술제품	×	×	×
	약저→약고	×	×	×	전자부품
	낮음→약저	전자부품	×	컴퓨터	의약
	높음→약고	×	×	의약	×
	높음→약저	×	IT	×	IT
	높음→높음	IT	×	전자부품, IT	×
중고위기술제품	약저→약저	×	전자부품	×	컴퓨터
	낮음→낮음	항공, 의약, 컴퓨터	항공, 의약, 컴퓨터	항공	항공
	높음→강고	×	×	×	정밀, 수송
	낮음→강고	×	×	정밀	×
	약고→높음	×	×	×	기계
	약저→높음	자동차	×	×	×
	약저→약고	기계	×	가전	×
	높음→약고	×	정밀	×	가전
	약고→약저	×	화학	×	×
	약고→낮음	×	×	자동차	×
	약저→낮음	×	×	수송	×
	낮음→약저	화학	×	기계	×
	강고→강고	정밀	×	화학	×
	높음→높음	가전	×	×	자동차
	약고→약고	×	×	×	화학
약저→약저	×	기계	×	×	
낮음→낮음	수송	가전, 자동차, 수송	×	×	

제품	경쟁력 유형	Mexico	Indonesia	Nigeria	Turkey
중저위 기술제품	높음→강고	1차금속	×	×	×
	약고→강고	선박	×	×	×
	약고→높음	×	석유, 1차금속	비금속	×
	약저→높음	×	×	조립금속, 제조업	×
	약저→약고	×	변환장치	비철금속	×
	낮음→약고	×	선박	고무	×
	낮음→약저	고무, 조립금속	×	×	비금속
	강고→낮음	×	×	석유, 선박, 변환장치	×
	높음→약고	×	비철금속	×	×
	높음→약저	×	×	1차금속	변환장치
	높음→낮음	석유	×	×	×
	약고→약저	×	고무, 제조업	×	×
	약저→낮음	×	조립금속	×	×
	강고→강고	×	×	×	선박
	높음→높음	×	×	×	고무, 제조업, 1차금속
	약고→약고	변환장치	비금속	×	조립금속
낮음→낮음	비철·비금속, 제조업	×	×	석유, 비철금속	
저위 기술제품	높음→강고	×	×	섬유	×
	낮음→약저	×	목재	음식료품, 인쇄	×
	강고→높음	×	섬유	×	×
	높음→약저	×	인쇄	×	×
	높음→낮음	×	×	×	인쇄
	약고→약저	×	×	×	목재
	약고→약고	×	×	×	섬유
	약저→약저	섬유	×	×	×
	낮음→낮음	음식료품, 목재, 인쇄, 가구	음식료품, 가구	목재, 가구	음식료품, 가구

주) ‘강고’는 매우 높음을, ‘약고’는 다소 높음을, ‘약저’는 다소 낮음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민트를 대상으로 한국의 대 민트 교역동향 및 교역품목의 구조를 고찰하고 무역성과지수를 활용하여 기술수준별로 분류된 국산 수출제품의 민트에 대한 경쟁력의 현황 및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 민트 교역에서 교역액의 지속적인 증가 속에서 무역수지 역시 증가세에 있고 교역품목으로는 완제품, 자동차부품 등이 많이 수출되고 있으며 연료 등 1차 품목이 주로 수입되는 가운데 완제품과 부품 등도 일부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한 결과 국산 수출품은 모든 민트 구성 국가들에 대해 다수의 제품군 및 개별 품목이 수출특화를 나타내고 있고, 경쟁력의 변화 추이에서도 역시 수출특화세를 유지하고 있어 국산 수출품의 민트에 대한 경쟁력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시장비교우위지수를 분석해 볼 때 국산 수출품은 여러 제품군에서 민트 국가들에 대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한편, 경쟁력이 높은 품목이 수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품목에 비해 소수였지만 고 경쟁력 품목에 경쟁력이 매우 높은 품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경쟁력의 변화 추이에서도 다수의 수출품이 수출특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산 수출품의 대 민트 경쟁력은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국산 수출품이 민트에 대해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경쟁력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고위·중위·저위의 기술수준별 수출제품군의 경쟁력이 민트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개별 품목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원 부족 국가인 우리로서는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부존하고 있는 민트의 활용성은 크다. 민트 국가들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부존하고 있고 모두 원유 생산국으로, 특히 멕시코와 나이지리아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세계 유수의 산유국이다. 원유를 비롯한 다량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게 있어 민트는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둘째, 한국 수출품의 대 민트 경쟁력 우위 상황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완성품의 수출과 원료 등 1차 품목 중심의 수입이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과 멕시코·터키 간 교역품목의 중첩, 멕시코의 NAFTA 효과 및 중국 대안적 생산 기지화, 한-터키 FTA의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양상이 지속될 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산 수출품이 민트 국가에 대해 안정적인 경쟁력을 유지해 가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한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각국의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품목의 발굴을 통한 수출품목의 다양화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넷째, 민트 국가와의 교역은 국가에 따라 내용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 전략도 국가별로 차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국가에 따라 우리와 교역품목이 서로 겹치기도 하고 에너지 원료 등 1차 산품의 수입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특화된 수출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민트가 집단적 경제협력체를 형성하여 영향력을 확대해 갈 것에 대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협력체의 형성이란 관점에서 볼 때 민트 국가들이 주축이 되어 발족한 미크타(MIKTA)는 의미 있는 행보로 보인다.⁷⁾ 민트의 잠재성을 고려할 때 민트와 FTA 체결 등을 선제적으로 적극 추진함으로써 긴밀한 경제적 유대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한-터키 FTA는 기발효 중에 있고, 멕시코와 인도네시아와는 협상 중에 있어 여건도 나쁘지 않다. 나이지리아와는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의 첫 FTA 체결이란 차원에서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트와의 교역에 있어서 한국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외부 경제요소인 민트 국가들의 경제상황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자료의 미비와 제한된 지면 등으로 인해 다양한 경쟁력 측정 지표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⁸⁾ 무역성과지수의 활용도 몇몇 지수에 한정하고 있다. 이 점들을 고려하면 보다 견고한 분석결과가 기대된다. 셋째, 분석대상 기간을 몇 개 연도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더 장기의 시계열로 확대할 경우 경쟁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특정 두 시점을 대상으로 경쟁력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몇 개 연도 평균값으로 분석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당해 연도의 경기 상황에 따라 수출입이 과도 혹은 과소 계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할 수 있어서이다.

7) 2014년 6월 서울에서 ‘브릭스 시대의 종언, 민트의 부상’이란 주제로 열린 제5회 세계전략포럼(WSF)에서 그 의미의 일단이 확인된다. 호세 로드리게즈 주한 멕시코 대사는 “미크타 프로세스를 통해 양극체제로의 회귀가 아닌 다자주의, 다극사회를 실현하는 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제하고 “G20체제는 그 중요도에 비해 구성원 간 이질감이 상당히 크다”며 “공동점을 가진 국가끼리 그룹을 구성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여 최근 브릭스를 대체해 MIKTA, MINTs 등 다양한 국가 그룹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하칸 옥찰 주한 터키 대사는 “브릭스 그룹의 지속 여부는 그 국가들이 결정할 문제지만 글로벌 거버넌스에 있어 미크타 등 중견국들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http://finance.daum.net/news/finance/all/MD20140612161206966.daum>, 검색일: 2014.8.10).

8) 국제경쟁력 측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입의 변화를 반영하는 무역성과지표를 비롯하여 가격 및 비가격지표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 측정에 있어서는 가격 및 비가격지표의 경우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측정이 곤란한 질적 특성들로 인해 무역성과지표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곽기호·오승훈·김원준, “수출 경합국 간 비교를 통한 무역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한국과 네덜란드의 일반기계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2, 1963-1989.
- 김경희, “한·중 지식서비스산업의 무역 경쟁력 분석과 시사점”, 『무역연구』, 제9권 제4호, 한국무역연구원, 2013, 123-150.
- 김박수·이창재·박복영·이홍배·이홍식·임혜준·이형근·김혁황,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민간품목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5-04-02, 2005, 266-313.
- 김성철, “우리나라 통신기기산업의 대중국 수출경쟁력 분석”,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4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2, 2825-2840.
- 김윤두·이철희, “주요 채소의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제25권 제1호,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013, 29-40.
- 김태현, “미국의 양적완화(QE)와 미국과 대만의 무역관계”, 『아시아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아시아학회, 2014, 73-98.
- 김희철, “한국 수출산업의 대칠레 경쟁력 변화에 관한 연구: 한·칠레 FTA 체결 전후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경영연구』, 제51권, 한국기업경영학회, 2013, 256-281.
- 남시경, “한·중 철강 교역구조 및 철강제품별 경쟁력 분석”, 『POSRI경영연구』, 제7권 제1호, 포스코경영연구소, 2007, 85-113.
- 맹철규, “최근 거대 경제권과의 FTA 발효에 따른 국내 자동차 수입시장의 구조변화”, 『관세학회지』, 제14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3, 85-106.
- 모수원·이광배, “광양항과 인천항의 수출경쟁력 분석: 항만물동량을 중심으로”, 『해운물류연구』, 제80권, 한국해운물류학회, 2013, 993-1008.
- 민경택·장철수·송성환·김진경, “한·중 임산물 교역의 분업·경쟁관계 분석”, 『산림경제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산림경제학회, 2011, 39-55.
- 박상수·유정정, “ECFA(경제협력기본협정) 이후 중국시장 내 한국·대만 간 수출경쟁력 분석”, 『한중사회과학연구』, 제31집, 한중사회과학학회, 2014, 43-62.
- 박연수·김홍률, “한·일 유지산업의 무역구조 및 경쟁력 분석”, 『일본근대학연구』, 제41집, 한국일본근대학회, 2013, 445-466.

- 박지혜·박철호, “한국과 중국 향장품의 수출경쟁력 비교를 통한 수출성장전략”, 『통상정보 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2.
- 송옥봉·박환재·기석도, “한·중 제조업의 산업간 및 산업내 무역구조 분석”, 『산업경제연구』, 제27권 제1호, 한국산업경제학회, 2014, 121-140.
- 송원근, “한·중 교역의 산업별 경쟁력 비교와 FTA에 대한 시사점”, 『정책연구』, 2010-10, 한국경제연구원, 2010.
- 안병국·최영훈, “금융위기 전후 한·중 철강기업 경쟁력 분석”, 『경영교육연구』, 제82권, 한국경영교육학회, 2013, 649-79.
- 양준석·김홍률, “1990년대 이후 한·미 간 무역구조의 변화”, 『정책연구』, 2002-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 오보수·장선미, “한국과 인도 IT산업의 경쟁력 비교 분석”, 『산업혁신연구』, 제28권 제4호,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2, 33-53.
- 이상민·장철수·송성환, “한·베트남 임산물 교역동향과 경쟁력 분석”, 『한국임학회지』, 제102권 제2호, 한국임학회, 2013, 281-291.
- 이순철, “현시비교우위지수를 통한 한국 철도차량 부문의 경쟁력 분석”, 『철도저널』, 제15권 제3호, 한국철도학회, 2012.
- 임해준, “한국 철강산업의 대일본 및 대중국 경쟁력 분석”, 『무역학회지』, 제32권 제1호, 2007, 263-282.
- 정무섭·표민찬, “중국 상장기업의 기술수준별 경쟁력 추격 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5집 제1호, 현대중국학회, 2013, 107-134.
- 조택희, “충북 수출산업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분석”, 『한국지역경제학회』, 제24권, 한국지역경제학회, 2013, 45-67.
- 최영훈·남대엽, “한·중·일 철강 교역구조 및 수출경쟁력 분석”, 『중국학논총』, 제49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4, 506-529.
- 한국금융연구원, “2014년 민트국가의 부상 및 전망”, 『주간 금융브리프』, 제23권 제4호, 2014.
- 한기조·서봉교, “중국 자동차 부품산업의 대일 비교우위 분석”, 『일본근대학연구』, 제43집, 한국일본근대학회, 2014, 433-456.
- 한나예·이재득, “한국-EU FTA 발효에 따른 무역구조 비교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8권 제1호, 국제지역학회, 2014, 539-560.
- Amador, J., Cabral, S. and J. R. Maria, “A Simple Cross-Country Index of Trade Specialization”,

Open economies review, 22(3), 2011.

Ferrarini, B. and P. Scaramozzino, “Indicators and Patterns of Specialization in International Trade”, *NCCR Trade Regulation*, Working Paper No.2011/10, 2010.

Lafay, G., “The Measurement of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s”, in M. G. Dagenais and P. A. Muet eds. *International Trade Modelling*, Chapman & Hall, London, 1992.

Lapadre, P. L., “Measuring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International Advances in Econ. Res.*, 7(1), 2001.

Hossain, M., *South Asia Economics in the Global Trading System*, ANU, 1996.

Huang, X. and J. Wang, “The Influencing Mechanism of Trade Openness on Economic Growth: Cointegration Analysis Based on Industrial Specialization Index in Guangdong”, *International Economics and trade research*, 24(11), 2008.

Redding, S., “Specialization Dynamic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58, 2002.

奥村和久, “日本の對世界貿易－高度成長終焉後の日本貿易構造の變貌(1)”, 『經濟論集』, 第33卷 第1号, 龍谷大學 經濟學會, 1996, 96-135.

<http://www.kita.net/>

<http://www.comtrade.un.org>

<http://finance.daum.net/news/finance/all/MD20140612161206966.daum>.

ABSTRACT

An Empirical Analysis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Export Products against MINTs based on Technological Level

Jae-Hee Sh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status and the trends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Korean export products against MINTs. For the stud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trade statistics for the period 2009-2012 produced by KITA and UN comtrade, and trade specialization index and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index were selected as index analysis methods.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Korea maintains a continuous increase of trade volume and trade balance in trade with MINTs, and exports finished goods, auto parts, etc. to MINTs, while mainly imports primary products such as energy fuels from MINTs. Second, Korea remains competitive in both product groups and individual products over MINTs. Third, even though Korean exports obtain a high competitiveness against MINTs, its competitiveness shows the differences by country.

Sever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need to take full advantage of energy resource-rich MINTs in securing stable energy fuels. Second, we should prepare response plans for the economic conditions which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trade with MINTs, Third, we need to build strategies for maintaining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exports over MINTs. Fourth, The differentiated export strategies should be established by country by considering differences in Korean exports' competitiveness which exist among the four countries of MINTs. Fifth, we need to prepare for such a situation which MINTs attempt to expand its influence by forming a collective economic cooperation.

Key Words : Technological Level, Export Products, MIN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Chosun University